

하나님의 은혜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조성훈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THE GRACE OF GOD

By
William MacDonald

Walterick publishers
P.O.Box 2216
Kansas City Kansas 66110

차 례

- 하나님의 은혜 7
- 하나님의 위대하심 15
- 인간의 죄악성 25
-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32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38
-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 44
- 이는 너희로 부하게 하려 함이라 55
- 구원의 확신 65
- 영원한 안전 71
-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79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6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살인자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그 살인자를 죽인다면 그것은 복수가 됩니다.

만일 당신이 잠잠히 앉아 사회의 공권에 맡겨 법정으로 하여금 그를 처형하게 한다면 이는 공의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당신의 집에 초청해서 함께 살며 또한 그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물론 당신은 이와 같은 예는 하나의 가상적인 것일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다른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당신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지옥에 갈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판결대로 집행하신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값으로 대신 죽게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아들이 당신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당신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무엇이 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 표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 예는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며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 다섯가지 간단한 성명(聲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에 가야할 죄인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2)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다.

(3) 주 예수께서 갈보리 동산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4) 하나님의 은혜는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사람이 그 스스로 얻거나 만들 수 없다.

(5)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1)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에 가야할 죄인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다면 그 이유는 사람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주목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죄인들에게 말입니다. 은혜는 본래 그 성격상 늘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한 자들에게 흘러내립니다. 은혜는 언제나 불의한 자와 저주받은 죄인들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을 드러내는 것은 공의이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은혜는 구원하고 거룩케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주받은 죄인, 죄를 지은 자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무능한 자들을 찾습니다.”

—C.I. 스코필드—

죄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에 의하면 죄인

들은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하며 영원히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란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그 댓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세주를 자신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영원한 안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베풀어지는 은혜

주 예수께서 갈보리 동산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못본체하고 눈감아 준다거나 그냥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범한 죄인을 벌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마땅히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법을 지키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죄없는 독생자를 죄인들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충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은혜를 “그리스도를 희생한 댓가인 하나님의 풍요”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4) 돈으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돈주고 사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를 율법, 행위 그리고 빛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약속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원칙은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대로 정확히 그 보상을 받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빛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일)을 받았으면 그에게 수고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구원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로마서 4:4~5).

구원은 사람들이 청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불해야 할 빛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일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당신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수성찬 앞에 앉아 값진 음식들을 먹을 것이며 그곳의 모든 것들은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매우 즐거운 저녁이 되겠죠! 이제 저녁이 끝난 후 대통령이 문앞까지 나와 당신에게 작별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면서 당신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대통령의 손에 쥐어주면서 “친절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참 즐거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돈이 들었을 것같은데 적은 일부나마 저의 먹은 것을 담당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의 친절에 대한 합당한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버릇없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와 같습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대에게나
 모두 무료이니 값없이 오라”

은혜라는 말에 무엇이 붙거나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은 더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로마서 11 : 6).

(5)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은혜

이제 마지막 요점인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죄악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기를 원했던 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춘

부들, 간음자들, 음행한 자들, 거짓말장이들, 속이는 자들, 살인자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가들... 모두 죄악 가운데 깊이 몰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기를 걸쳐 하나님은 모욕과 거부를 참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아왔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십자가에 못박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 : 31).

믿는 죄인들에게 주신 높은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인들과 예술가들, 주권자들, 평민들, 순교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강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다”

—루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가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더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신명기 33 : 27).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시며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15 : 11)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매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풀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이사야 40 : 22, 23).

세상의 민족들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이사야 40 : 15, 17).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마땅한 분입니다(디모데전서 6 : 15 ~ 16).

“이러한 분은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는 그 위엄에 있어 유일하시며 존귀에 있어서도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도 뛰어나십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이들에게 주시지만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인용).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사도행전 17:25). 그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나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의 은혜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로마서 11 : 35, 36).

하나님의 지식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어느 것이든 그가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마태복음 10 : 30).

“참새 다섯이 앉사리온 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누가복음 12 : 6).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고 조언한 자도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그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이사야 40 : 13, 14).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뇨”(로마서 11 : 33, 34).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했을 때 그는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 : 5)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브리서 4 : 13).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창세기 16 : 13).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잊어버리기로 한 것 외에는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 외는 잊지 않으십니다(히브리서 8 : 12).

하나님은 만유 위에 뛰어나십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역대상 29 : 11, 12).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역대하 20 : 6).

모든 피조물의 주로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시편 135 : 6). 이 말은 그는 그의 기뻐하시는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시편 115 : 3).

하나님의 동거나 행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을 권이 없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 계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다니엘 4 : 35).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르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피조물보다 월등히 높으시며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십니다. 아무에게도 복종치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완전히 독립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오직 그의 기쁨 그리고 언제나 그의 기쁘심을 따라 행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를 훼방할 수 없습니다”-(인용).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사무엘상 15 : 29).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수기 23 : 19).

“나 여호와와는 번역자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

들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말라기 3 : 6).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야고보서 1 : 17).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는 죄를 변호하거나 별하지 않고 눈감아 주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한일서 1 : 5).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이사야 6 : 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하박국 1 : 13).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루시는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드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이 죽으실 때 세 시간 동안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의 거룩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또한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시편 62 : 11).

그의 능력은 창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과 별들은 측량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시편 8 : 3, 4).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우주를 붙들고 계심에 또한 나타나 있는데 모든 것—식물, 짐승, 사람,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에베소서 1 : 19, 20).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고린도전서 1 : 9). 그는 그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예레미야애가 3 : 22, 23).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나훔 1 : 7). 그의 선하심은 모든이들에게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들

최 가운데 죽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이는 조금도 그의 선하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마태복음 20 : 15).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로마서 2 : 4). 그는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의 공격을 참으시며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시편 57 : 10).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시편 103 : 11).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에베소서 3 : 18, 19).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높이, 길이 그리고 깊이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이셔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봅니다(요한일서 4:7~11). 하나님의 사랑은 공명정대하며 우주적입니다.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으로부터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꾸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로마서 8 : 35 ~39).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의 피조물들이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욥기 11 : 7~9).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시며 어떠한 말로도 그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 분이심을 생각할 뿐입니다” - (Novatian)

경이로운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 대신 고난 당하고 피흘려 죽게 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독립전쟁에서 전사한 안드레(Andre) 소령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글입니다.

나의 피난처

응덩이에 빠져 외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여!
내 영혼에 피난처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이!

나는 하늘을 지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를 대하여 싸웠었다.
나는 그의 은혜를 말하기도 싫어했으며
피난처를 찾기는 너무 교만했었다.
나는 질은 애굽의 밤공기에 싸여
빛보다는 어두움을 찾았으며
피난처를 모르고
죄악으로 질주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이

나를 붙잡았으며
나는 슬픔에 싸여
피난할 곳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온세상을 지옥에 보낼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진노를 지시고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셨다.

천둥과 폭풍이
온 세상을 뒤흔든다 해도
나의 파난처인 예수님께는
미치지 못하리.

인간의 죄악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인간적이듯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 신성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아주 어두운 그림을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 정직하다면 인간이 그렇게 어둡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은 경건치 못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날 때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했습니다”(시편 58 : 3).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어릴 때부터 자연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의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잠언 22 : 15).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며(시편 51 : 5) 하는 일을 통해서도 죄인입니다(로마서 3 : 23). 그 자신이 죄인이며 하는 것도 죄악된 것들입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더 죄악된 것입니다(마가복음

7: 15~23). 그 안에는 부패와 부정 그리고 죄악의 오물 구덩이가 있습니다(예레미야 17: 9).

사람의 중심의 생각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은밀한 생각들이 기록된 책을 만들 수도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책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난 주에 했던 추악한 생각들을 다니면서 선전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추악한 생각—그들 마음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생각—들을 공공건물의 벽에 써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들이 생각 해주기를 원하는 자신과 본래의 자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을 씩니다.

인간에게는 본래의 모습인 ‘자아’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자아상(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식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에게 대해 말하기를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홀로 있을 때의 그가 진정한 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한복음 3: 19)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를 볼 때에는 굉장히 불쾌해 하며 혐오감을 가지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줄로 생각하느냐”(로마서 2: 3).

이 죄는 모든 사람 즉 육신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

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로마서 3: 10~12).

죄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목구멍이나 혀, 입술, 입, 발, 눈 등 지체의 모든 부분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3: 13~18).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은 사람의 형상이나 새, 네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형상입니다(로마서 1: 23).

사람은 그의 생명과 양식, 의복, 그리고 안식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나 대통령 또는 주권자들은 욕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주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 불러 모욕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20: 7).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는 대신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 때 기뻐하고 하나

님을 생각할 때면 슬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뿐만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 : 32).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잠언 4 : 16).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 자신이 우선이어야 하며 자기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이사야 53 : 6). 그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이나 음란, 그리고 여러 형태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로마서 1 : 26 ~27).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이사야 2 : 22).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예레미야 17 : 5).

“...사람은 다 거짓되되...”(로마서 3 : 4).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분을 발하며 그 이웃에 대하여 악의를 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하여 시기하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흠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도 더 의롭게 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자기의 양심에 괴로움이 되므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요한복음 3:19~20).

사람은 하나님과 그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는 술취함이나 부도덕 그리고 방탕을 통하여 그 자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재능을 낭비하며 그의 소유를 허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상담을 거부하며 그의 친한 친구를 거절합니다. 그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원수입니다.

성경에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비참하게 타락되고 더럽혀진 인간을 묘사하기 위하여 문둥병 환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8:2). 사람은 중풍병 환자(요한복음 5:5), 귀머거리(마가복음 7:32), 병어리(마가복음 9:17), 소경(요한복음 9:1),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에베소서 2:1)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더럽혀졌으며 무력하고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절정은 지금부터 약 1900여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예수 그리스도—이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모든 면에 있어 온전한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흠치거나 죽이기 위해 또는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요한복음 10 : 10). 그러나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은 “이는 상속자나 죽이자”(누가복음 20 : 14)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간음자들, 술취한 자들, 거짓말장이들, 도둑들 그리고 살인자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알콜 중독자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갈 것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불의하며 심판받을 일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오!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나같은 자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인가!”라는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주의 피를 흘리게 한 내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네.

그에게 아픔을 가하고

죽음으로 밀어 넣은 나를 위해

그는 죽으셨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다니!

참으로 놀라운 사랑일세!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그 자신을 비우고
천한 아담의 자손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일세!
나의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찾아 주셨네!

나에겐 심판이 없네.
예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네.
나는 그 안에 살며 그로 옷 입고
그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를 통하여 면류관을 얻으리!

-찰스 웨슬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 나님의 자비는 사실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지로 일어날 모든 일—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깊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인간에 대한 축복을—사람들의 사고의 범위를 벗어난—계획하셨습니다.

1. 창세 전에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요한계시록 13 : 8).
2. 창세 전에 예정을 입은 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에베소서 1 : 4).
3. 창세 전부터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디도서 1 : 2).
4.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었습니다(마태복음 25 : 34).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 : 26).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아담이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땅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

습니다(창세기 1 : 28).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 두셨습니다(창세기 2 : 8). 모든 좋은 것은 그에게 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의 선하심은 정기적인 씨뿌림과 추수 때, 겨울과 여름, 추위와 더위, 그리고 밤과 낮에 나타났습니다(창세기 8 : 22). 그가 풍성하게 준비하신 음식의 다양성에도 주의 선하심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에도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창세기 3 : 6).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주를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사람에게 금하고 있다는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창세기 3 : 1).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을 옷을 준비하셨습니다(창세기 3 : 21). 그리고 사람의 원수 사단을 없이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3 : 15). 그후의 구약성경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호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가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통하여 그 후손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조건없는 언약이었습니다(창세기 15 : 5, 사무엘하 7 : 16).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에 그의 백성들은 불신과 우상숭배, 불평, 부도덕 그리고 감사할줄 모르는 마음으로 대신 갚았습니다. 이와 같은 배은망덕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웅덩이에 빠트리며 많은 경우에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욕에도 오래 참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보다 더 놀랍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요한복음 3:16). 최악된 세상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악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같은 거룩과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생생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고 또 하나는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림은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창세기 2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 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산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가고 아들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슴아픈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묶여 단 위에 올려지고 칼을 높이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슴 아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우리는 그 아들을 갈보리 동산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비교는 끝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대신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은 생각하셨으나 자신의 마음은 고려치 않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 예수를 위한 대속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번째 이야기 즉, 아들을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 : 9~15).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번째 종은 상하게 하고 포도원에서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공경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난폭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범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갚으셨습니다(창세기 50 : 20). 그들은 그들의 사악함 가운데 행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양들이 그 목자를 죽인 것입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 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누가복음 14 : 17)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1900여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큰

복음 잔치에 참여하도록 간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직 몇 안되는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우신 주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평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굳은 약속에 내 영혼 편하다.

이 몸의 생명 끝나고 이 세상 떠날 때
평안과 기쁨 충만한 새생명 받으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존 뉴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 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원하여 죽으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8:9).

다음의 두 가지 놀라운 사실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 (1) 그는 부한 자였습니다.
- (2) 그러나 그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한 자였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는 아버지 하나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계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셨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셨습니다(잠언 8:30). 하늘에 있는 그는 부를 설명하는 것보다 별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부요함 가운데 계시며 안식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는 슬픔이나 고난 그리고 죽음의 고통과는 상관 없이 하늘에 계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는 범죄한 인간들을 그 죄에 따라 멸망으로 몰아 넣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기쁨과 부를 떠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빌립보서 2:6). 그는 기꺼이 하늘의 부를 이 땅의 가난과 바꾸셨습니다. 부하신 분이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빌립보서 2:7). 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게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비하였습니다. 사람이 벌레나 미생물이 된다는 것도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장성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의 창조주께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누가복음 2:7).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주께서 나약한 어린아이로 그 어머니 품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한 집안이나 영향력 있는 집안이 아닌 아주 단순한 유대여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출생은 깨끗한 병원이 아니었으며 초가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굿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졌습니다(누가복음 2:7). 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이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와 부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오시지 않고 종으로 오셨습니다(빌립 보서 2 : 7).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마태복음 20 : 28). 영원 전부터 천사들의 섬김을 받던 분이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죄의 종들이는데 문자 그대로 그는 이 종들의 종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30년을 평판도 별로 좋지 않은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무명하게 살았습니다(누가복음 2 : 39). 그리고 3년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 : 29). 눈으로 보아서는 그가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육안에 감춰어져 있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것(베드로전서 2:22) 말고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리를 듣게 하시며 병어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등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절뚝발이를 온전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의 이웃들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미워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적대를 참으셨으며(히브리서 12 : 3)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서 나그네 처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9 : 58).

제자들은 휴식을 위하여 그들의 집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밤을 지새며 이슬을 맞으셨습니다(요한복음 7 : 53, 8 : 1). 이 때에도 전과 동일한 하나님이었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재앙을 위해 하늘의 부귀영화를 떠나셨습니다. 그는 이 험난한 세상을 위해 거룩하고 신성한 하늘나라를 떠나셨습니다. 3년동안의 그의 공적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그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의 제자 유다의 손에 의해 적들에게 팔린바 되었습니다(마태복음 26 : 14~15). 그에 대한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구세주를 노예들의 몸값인 은 30에 팔다니 참으로 이상한 거래입니다.

그는 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을 당했습니다(마태복음 26 : 69~75). 썩을 인간이 영광의 주를 부인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마태복음 27 : 2). 무죄한 분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다니 참으로 이상한 재판입니다.

그 후에 그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마태복음 27 : 31).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이 범죄자들이 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립보서 2 : 8). 그 죽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제곳에 두신 분이 슬픈 사람이 되어서 큰 슬픔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이사야 53 : 3). 고난이 전혀 필요 없던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왕이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분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완전히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의하여 받은 육체적인 고난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도 정말 혹독한 고통이었습시다만 그의 진정한 고통은 3시간의 어두움 가운데서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 지셨을 때였습니다(누가복음 23 : 44). 그의 가장 큰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죽을 때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였습니다(마태복음 27 : 46). 온 세상을 지옥에 보낼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그리고 사람들이 짓게 될 모든 죄가 다 그에게 지워졌고 그는 그 모든 죄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고난의 넓이를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 십자가 위에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요한복음 10 : 11).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건넌 강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

십자가 위에서 그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판 사람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3 : 44). 십자가 위에서 그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장사와 같았습니다(마태복음 13 : 45~46). 부하신 분이 전혀 쓸모없는 죄인을 사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존 번연은 “복되신 아들이시여, 당신 자신을 낮추심에 당신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은혜가 당신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오게 했고 영광을 버리게 하였으며 가난하게 하였고 멸시를 받게 하였나이다. 은혜가 당신으로 죄의 짐 곧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게 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모든 눈물에 은혜가 넘치고 당신 옆구리의 흐르는 피 속에도 은혜가 넘치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꿀같은 말씀에도 은혜가 넘치고 두들겨 맞는 채찍 자국과 가시 면류관 그리고 손발에 박힌 못 자국에도 당신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여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놀라게 만들고 죄인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사탄을 경악케 만든 은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

앞 장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로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 해 죽게 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곧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빌린 무덤에 묻히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4). 나중에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예와 영광과 능력의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사도행전 1:10). 그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업을 만족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입니다(로마서 4:25).

이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불한 값은 모든 인류의 죄 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 값이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데리고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만 구원받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오직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그는 구원을 얻을만한 자격이 있는 자, 그만큼 일을 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2) 다음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첫번째 방법을 택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십계명을 지킨 자
- (2) 황금률을 순종한 자
- (3) 산상보훈을 지킨 자
- (4) 침례받은 자
- (5) 교회에 출석한 자
- (6) 선한 삶을 산 자
- (7) 최선을 다한 자
- (8) 어느 정도 헌금한 자

영생이 어떤 삶에 대한 댓가, 또는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은 다 이 부류 즉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는 범주에 속합니다. 두번째 방법인 은혜로

구원얻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댓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받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행함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의 말씀들이 이에 대한 사실을 결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로마서 4 : 4~5).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 : 23).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베소서 2 : 8~9).

성경의 의미에서 볼 때 선물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며 받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받거나 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딸이 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인간의 모든 자격이나 가치를 배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악한 죄인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100여번이나 구원은 구세주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 : 1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 : 3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한복음 5 : 2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한복음 6 : 47).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사도행전 16 : 31).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요한복음 1 : 12). 이는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그로 자신 안에 들어 오시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요한계시록 3 : 2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이빙에 대한 첫 강의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코치는 학생에게 다이빙 보드 끝에서 물 쪽을 향해 발을 나란히 모으고 서라고 말합니다. 다음 단계는 잭 나이프형으로 손가락이 발가락에 닿도

복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코치는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몸을 물 위에 떨어 뜨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지만 학생은 코치의 말을 따라 합니다. 그가 몸을 물을 향해 내어 밀 때 그의 손이 먼저 나가고 그의 몸도 손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다이빙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완전히 그의 몸을 물에 맡겼습니다. 공중에서 그의 몸을 지탱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수영장의 물을 의지한 결과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모순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장에서 구원은 어떠한 값이나 조건이 없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믿음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2) 믿음은 어떤 공적 또는 공훈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3)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믿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에서는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무익한 것이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이라도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위한 행위와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행위를 합하여 구원받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로마서 11 : 6).

믿음과 행위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원리입니다.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지 둘을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있는 질문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선행을 통하여 받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다음에 설명하는 것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1) 선행을 통하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이사야 64 : 6).

사람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사람이 그 스스로 일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빗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산 삶으로 인하여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 : 35). 사람이 하나님께 빗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만일 사람이 그 자신의 행위나 특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로마서 3 : 27). 하늘에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다면 그는 하늘나라를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4) 만일 사람이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자신이 그에게 있어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는 그 자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첫째 계명에서 아주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애굽기 20 : 3).

만일 사람이 그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도울 수 있다면 그는 구세주의 조력자로서 주 예수께서 누리시는 구세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 본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 선행을 통한 구원의 사상은 “피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 : 22)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선행은 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신들의 선행으로 하늘나라를 정복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완전치 못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완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야고보서 2 : 10).

(7) 사람이 그 남은 삶을 흠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죄에 대해서도 물으십니다(전도서 3 : 15). 그리고 이 순간까지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8) 사람이 선행으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선행이나 어떤 특성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갈라디아서 2:21).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 4:12).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린도전서 3:11).

(9) 사람이 선행으로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도울 수 있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온전성을 부인합니다(골로새서 3:11).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에게 불명예를 돌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서 그리스도께 어느 정도의 자리는 양보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의식, 그리스도와 그의 안수 받은 목사들, 그리스도와 그 자신들의 회개, 그리스도와 선행, 그리스도와 그들의 기도, 그리스도와 그들 자신들의 신실과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Ryle—

(10)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더 나은 자, 더 복된 자의 위치에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사도행전 20:35).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복된 자의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받게 될 것입니다.

(11) 다시 반복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셨기 때문에(요한복음 19 : 30) 사람이 이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미 끝난 일에 당신이 무엇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디모데전서 1 : 15).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다. 또한 사람들이 이를 구원받는데 사용하기를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를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다리로 사용하도록 주시지도 않았습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졌습다. 이는 그들로 자신들의 부패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자비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5 : 20).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로마서 3 : 20).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로마서 3:19).
 “율법이 우리의 입을 막기 전까지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C.I. Scofield—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이 구원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에베소서 2 : 10). 선행은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디도서 2 : 14).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이며 구원받은 영혼이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진리가 바로 이 면입니다(야고보서 2 : 14~26).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증거로 선행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인 선행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그의 삶에 선행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선행의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면 입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은 주께서 오실 때 보상을 받습니다(고린도전서 3 : 14). 선행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행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한 그 행한 선에 대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이는 너희로 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되는 데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복받아 부자가 됩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 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은혜의 풍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아낌 없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받습니다. 하늘의 모든 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선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 못한 선물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로마서 8 : 32).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속한 보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먼저는 그가 구원받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았고(로마서 8:1)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며(로마서 6:14), 그리고 장래에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받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요한일서 3:2). 그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으로서 일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 그는 거둬, 또는 위로부터 나게 되었습니다(디도서 3:5, 6). 첫 출생에서 그는 치유될 수 없는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생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축복을 대신할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3) 또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로마서 5:1).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제 그 자신의 결례와 같은 더러운 옷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옷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로마서 8:33). 사실 그는 아담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손 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습니다(로마서 5:15~21). 이와 같은 은혜의 가치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4) 그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의 노예시장에서 그를 다시 사왔다는 것을 말합니다(골로새서 1:14). 이에 대한 가치가 잘 이해 되지 않는다면 이 구속의 댓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베드로전서 1:18~19). 주께서 자기 피로 그 값을 지불할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5)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에베소서 1:7). 이 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습니다(시편 103:12). 하나님은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히브리서 8:12). 이 은혜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6)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로마서 5:10). 이제 그와 하나님 사이는 더이상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서로 화목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죄를 다루셨고 투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7)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함을 받았습니다(고린도전서 1:2).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따로 성별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그리스

도를 닦아가도록 돌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같은 다른 많은 아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을 감격케 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8)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교회, 즉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 : 16). 그는 또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깝고 또한 사랑스러운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9)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증거 또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 : 14). 성령이 분명히 그에게 계신 것같이 그는 또한 분명히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인으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 : 13). 어떠한 피조물도 이보다 더 훌륭한 인을 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자기의 것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겠습니까?

(11)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각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고린도전서 6 : 19).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한분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고린도전서 6 : 19).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에베소서 3 : 17, 골로새서 1 : 27).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십니다(에베소서 4 : 6).

(12) 그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되었습니다(에베소서 1 : 6).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랑하는 아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더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그의 아들 안에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또한 완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으시는데 우리도 또한 계속, 영원히 받으실 것입니다.

(13)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골로새서 2 : 10). 다시 말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처럼 하늘에 맞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를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늘에서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늘나라에 대한 적합성은 전적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달려 있으며 아무것도 그 완전한 신분에 무엇을 더할 수 없습니다.

(14)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요한복음 1:12). 그리스도인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왕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관계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은 온 세계적인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소금이며 그들의 교제의 기쁨은 삶의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15)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됩니다(갈라디아서 4:4~7). 그는 가족의 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는 아직 어려서 어떤 법적인 구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특권과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죄인을 지옥에서 구해주는 것만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로마서

5 : 20).

(16)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에 그 진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요한복음 17 : 23).

“사랑, 큰 사랑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향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17)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요한복음 5 : 24). 영생이란 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이는 보석이나 당신이 소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18)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로마서 8 : 17).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같으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내 것이

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이 축복을 얻기 위하여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19)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에베소서 2:18). 그는 밤이나 낮,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나 대통령에게 한번이라도 초청받는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 그리스도인은 대변자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보살핌의 대상입니다(요한일서 2:1, 히브리서 10:21~22).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의 사람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며 참소하는 자들의 참소를 막으시되 그 이루신 구속의 사역으로 변호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2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베드로전서 2:5, 9). 그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즉 그의 소유와 찬양 그리고 그 자신까지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두움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옮겨 주신(골 1:13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22)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빌립보서 3 : 20).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국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데 그리스도인이야 말로 얼마나 더 그의 나라가 하늘나라이며 또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 할 수 있겠습니까(고린도후서 5 : 20)!

(23)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축복들 가운데서 아마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그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는 이 영광을 그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니다(요한복음 17 : 22). 이는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는 오로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24) 그리스도인들은 어느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요한일서 3 : 2). 세상은 아직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다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세상은 전에 멸시받았던 그리스

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보화들 중 겨우 몇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에베소서 2:7).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에베소서 1:3)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 람이 그 자신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면서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만일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와 같은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할 만큼 의롭게 살았다거나 바른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덧붙여서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그의 완벽한 삶에 계속 달려 있기 때문에 그가 계속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을 자신의 행위나 특성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물어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죽어 봐야 알지요”라고 대답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과 악을 달아보시고 선과 악 어느 쪽이든 많은 쪽에 따라 처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번째 사람에게 물으면 그는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나도 다른 사람들 만큼은 선한 사람입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답들은 다 그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로마서 4:16).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 뿐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을 때 실패의 가능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영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사람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디모데후서 1 : 12)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쓴 것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에베소서 2 : 8).

사실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씌어졌습니다. 구원이 조금이라도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이를 굉장히 무례하고 경망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구원이 사람이냐 그 행위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무례이며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디(D.L. Moody)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은 무언의 죄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요한일서 5 : 13)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 말장어로 만듭니다(요한일서 5 : 10).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즉 구원의 확신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나 실수 그리고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막 13 : 31). 이것은 영원히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변화의 요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실망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 : 13).

다시 말해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당신은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구원받은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신비한 것이나 감정적인 것을 체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감정의 파도가 몸을 덮쳐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떤 충격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성경은 전혀 그와 같은 감정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감정은 매순간 순간 변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와 같은 불확실한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스코필드(Scofield)박사가 말한 것처럼 “칭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 즉 감정에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 때로 진정한 기쁨의 감정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점은 마음의 기쁨 감정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의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면서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기쁜 감정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 : 43)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구원의 확신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라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 (1)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요한일서 3 : 14).
- (2)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마음(마태복음 6 : 13).
- (3) 거룩을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요한일서 2 : 3).
- (4)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베드로전서 2 : 2).
- (5)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각(로마서 8 : 1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으면 그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달리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아주 위험한 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삶에 달려 있으며 죄 짓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자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누구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다음의 성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안전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 전부터 택한 바 되었습니다(에베소서 1:4). 아버지의 그 자녀들에 대한 예정과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보장합니다(로마서 8:30). 요한복음 6장 37절도 보십시오.

(2)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역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히브리서 10 : 12). 이에 무엇을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히브리서 10 : 18).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들 안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영접입니다(히브리서 10 : 14).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 대한 댓가는 단번에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값을 그리스도에게 요구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같이 한다면 이는 공의롭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4) 앞에서 본 것처럼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선물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변하시거나 다시 묻지 않으신다, 로마서 11 : 29).

(5) 구원은 출생으로도 말합니다(요한복음 3 : 3).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는 위로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요한복음 1 : 12). 이 출생은 마지막이며 이제 더이상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출생하면 결코 다시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슬퍼하거나 그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중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지만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못합니다.

(6) 신자는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듯이 그 자신의 구원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시도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갈라디아서 3 : 3).

(7)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버리시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로마서 5:10).

(8)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은 얼마나 값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요한복음 10:28).
 요한복음 3장 16절과 3장 36절, 6장 47절도 보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9) 로마서 8장 30절에 의하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또한 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 데리고 가 새로운 몸을 주며 죄로부터는 영원히 격리시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영화는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은 이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0)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키십니다.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디모데후서 1:12).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립보서 1:6).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다서 24절).

(11) 그리스도인의 보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확실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 요한복음 17장 1~26절 :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 로마서 5장 9절 :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분의 현재의 삶과 우리를 위한 하늘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 히브리서 7장 25절 :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 요한일서 2장 1절 :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2)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 : 38~39).

(13)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한복음 14 : 16~17).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보십시오.

(14) 신자들은 또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 4 : 30). 그리고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에베소서 1 : 13~14). 이는 그의 자녀들이 하늘에 이를 때까지 그의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베드로전서 1 : 5). 이것을 아주 위험한 교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결정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후 곧 문란과 살인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며 실제로 그와 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괴상한 사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원히 안전하다는 교리는 사람을 죄 짓도록 권고하

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값 없이 은혜로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은 형벌의 두려움보다 더 강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사람이 조심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게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가장 고상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증진시킵니다.”

—로빈슨(Robinson)—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분의 사랑을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 은혜를 거스려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는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4).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보다 지어보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새 성품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심한 슬픔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아버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가져오게 한 죄 짓는

일에 빠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 일입니다. 또한 죄 짓는 일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상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고린도전서 3:15).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에야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습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삶으로 그가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짓 고백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리고 사랑하신 구세주를 의지한 사람에게는 그를 안전하게 하늘에까지 인도 시켰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내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표로
영원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으니
내게 확실한 보증이 있어
기쁨으로 그 날에 이르며
복된 영혼으로 하늘에 이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 람이 자신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는 그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자에게 그같은 친절을 베푸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놀라움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어두운 내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셨나이다.

그는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룻기 2:10).

- ④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 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사무엘하 7:18~

19)라고 외칠 것입니다.

또는 드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사무엘하 9 : 8).

또는 백부장이 한 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마태복음 8 : 8).

아무튼 그는 그가 그와 같은 복음 잔치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운 경이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잔치의 경이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칠 것입니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불행을 택하는 가운데서

주여, 어찌하여 나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늦기 전에 이곳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깨달음은 또한 주님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찬양과 경배는

주 예수여!

모두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세주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말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영광스러운 이름들,
사람과 천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름들이 모여
말한다 해도
우리 구세주의 위대하심을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리.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헌신을 고백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여!
당신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당신과 같이 은혜에 풍성한 이가 어디 있으리이
까?

아니면 어린 아이 처럼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소리칠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구세주의 사랑을 나는 노래하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나?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경배하
고자 하는 깊은 내적인 충동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 앞에 너무 하찮은 것
그의 사랑이 너무 놀라와
나의 마음과 삶,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앞에 아주 적은 것이라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린도후서 5:14~15)는 사도 바울의 말을 붙잡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요구하는 사실을 봅니다(로마서 12:1~2). 그는 자신이 이제는 값으로 산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합니다. 내 주인에게 속하여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의 눈에는 주께 드리기에 너무 큰 희생제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나 지식...,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전 생애 있어 주님은 언제나 가장 귀한 분이며, 심지어 그를 위한 고난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지갑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깨달은 것은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얼마나 드러야만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그의 일에 얼마를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신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네.
내 마음, 내 건강,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며
영원히 그의 것이라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넘치는 마음은 값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사무엘하 24: 24).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데
주여, 내가 어찌 나의 시간을 아끼며
금전이나 힘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귀한 것이라고
주 앞에 아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향은 거룩에 대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불의나 세상의 정욕을 미워하고 그가 처한 곳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디도서 2: 11). 자신의 죄가 구세주를 죽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강한 이유를 말해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가 되게 합니다. 이제 그는 그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못 본체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크게 빛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로마서 1:14).

내가 보는 유일한 사람들,
정복해야 할 땅,
왕이 되어야 할 노예들,
헛된 소문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만
술뜨게도 그들은 물질에 만족하고 만다.
나팔소리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외침이
내 몸을 사로 잡는다.
저들을 구원하라!
멸망에서 구원하라!
저들을 위해 죽으라.
저들을 위한 제물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는 기대감 속에 성경으로 다가가 그가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성경을 한장 한장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교회와 유대나라와 이방인 및 세상 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기 위해 성경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그분과 기도으로써 교통하고픈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흥미없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복스런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무릎꿇고
친구와 이야기하듯
나의 하나님 그분과 사귀을 갖는 그 한 시간
오, 참으로 순결한 기쁨의 시간일세.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그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도록 합니다 (딤후 2:13).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7).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놀랍습니다! 영원도 그 주제를 고갈시키기엔 오히려 부족할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말씀
권영부/16권/200원

돈으로 살수 없는 진주
권영부/16권/200원

두 길과 두 운명
권영부/16권/200원

생명을 위한 생명
권영부/16권/200원

구원의 안전 확실 기쁨
조지 케링/98권/400원

아름게 거듭날까?
이훈환/98권/400원

참된 구원이란?
워릭스디 마셜/98권/400원

복음에 관한 오해들
앨빈트 호튼/98권/400원

만어도 죄인인가?
허문호/98권/400원

성경을 알고 자신을 알라
이윤석/98권/700원

말는 자의 영리한 안전
H. A. 아이어사이드/98권/1,200원

영혼의 해답
김문민/72권/700원

오리,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권영부/98권/400원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필리프 맥도널드/98권/1,100원

다 한 번 뱀인 인생
필리프 맥도널드/98권/1,400원

음사의 지우
필리프 맥도널드/98권/1,400원

하나님의 은혜
필리프 맥도널드/98권/1,200원

해답은 있는가?
존 윌리엄스/98권/1,100원

불가능한 일들
알프레드 P. 깁스/24권/400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송재국/98권/400원

율법이란 무엇인가?
송재국/98권/400원

종생(거룩함) 그것은 무엇인가?
송재국/98권/400원

하나님의 구원계획
송재국/98권/400원

영수를 통한 교훈
송재국/98권/400원

들으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통곡들
허문호/98권/400원

나는 이것을 기억하라
D. L. 루디/98권/500원

오만한 이미지들
필리프 맥도널드/98권/1,100원

영사받지 못하는 죄
J. S. 백스더/98권/400원

100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필리프 맥도널드/98권/400원

의사의 눈을 통해 본 뱀고치는 기적
에디 C. 힐/98권/400원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책임
필리프 맥도널드/98권/400원

그리스도인과 고난
필리프 맥도널드/98권/400원

그리스도인과 선교
필 노트웨이/144권/400원

회백(해느케르)다사 율이랄 수 있을나
필리프 맥도널드/98권/500원

자녀교육의 인도자들
지독 더. 윌스. 케. 요리아스/98권/4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필 리틀/98권/400원

말는 자들의 죄
존 윌리엄스/98권/400원

리처드 니콜슨의 100가지 질문

말씀의 근본 진리들
존 리처드 니콜슨/1,800원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처드 니콜슨/1,800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존 리처드 니콜슨/2,900원

광야의 성막
존 리처드 니콜슨/2,800원

이후의 7월기
존 리처드 니콜슨/1,200원

그리스도인의 모음 - 교회
J. R. 리틀프린우드/1,980원/2,9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 I. 스코필드/980원/1,400원

그리스도인의 성결지침
윌리엄 맥도널드/880원/1,2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윌리엄 맥도널드/880원/1,200원

그리스도인의 사랑생활
존 윌리엄 노윌링/1,280원/1,5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윌/680원/1,200원

신앙에 갈취하지 교리주의 반말들
T. 이나스트 윌슨/1,480원/2,200원

비율과의 관계
H. A. 아인슈타인/480원/1,200원

모임에 대한 성경의 원리
윌프리드 P. 갈스/480원/1,200원

각주된 교회사
A. E. 호우튼/480원/1,200원

함께의 집 - 성막(말씀 사전 31편)
J. 로우/480원/1,2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오리스/680원/1,500원

성경년의 역사
이나스트 단담/480원/1,5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 E. 홀로무/1,280원/1,800원

순례하는 교회(교회사)
E. H. 브루워드/480원/1,200원

성교사와 그의 설교
윌프리드 P. 갈스/480원/1,200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 예배
윌프리드 P. 갈스/240원/4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지침
윌리엄 스톨라우그/380원/600원

교회는 하나님을 통과할 것인가?
E. W. 로저스/1,280원/1,700원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나단 J. 스코필드/200원/300원

제사장 의복
C. W. 슬래임/200원/300원

옛가리의 우림이
리처드 니콜슨/240원/300원

성경해설의 영적 23가지
매드윈 허틀/880원/1,500원

핵심 설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480원/1,200원

리처드 니콜슨의 100가지 질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윌리엄 맥도널드/1,120원/2,000원

세마주의의 바른 이해
찰스 C. 리처드/2,480원/4,500원

주님의 만찬
윌프리드 P. 갈스/256원/4,400원

말씀의 묵상
윌리엄 맥도널드/448원/8,500원

나그네의 소망
이언올/204원/400원

성령충만한 가정
필립 부/144원/2,800원

결혼과 가정
A. J. 스톨라우그/180원/3,200원

엘리아 - 엘리아
C. E. 터틀 - V. D. 드릴링/144원/2,800원

구원의 열매성과 내세구원 해설
바운튼/480원/1,700원

진리의 열과 미혹의 열
바운튼/480원/1,700원

영광을 거신다는 삶
윌리엄 맥도널드/1,280원/2,500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 M. 프레이저 - 스티븐/480원/800원

베드로의 사역과 증거
R. E. 홀로무/480원/1,200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윌리엄 로저스/1,280원/2,500원

세계선교 - 전이전
E. L. 맥스웰/480원/1,500원

빛의 미와 같은데
찰스 스톨라우그/1,880원/3,800원

하나님의 은혜

- 발행일 : 1991년 3월 15일 1판 1쇄 발행
1996년 3월 30일 1판 3쇄 발행
-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 옮긴이 : 조성훈
- 발행인 : 이치일 (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 (등록 No. 4-41호)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 전화 : (0344) 914-2732
- 팩스 : (0344) 917-4520

• 정가 : 1,400원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89-7531-713-7 03230